

통권

58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 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6.23.

발행일

2025.10.28.

발행인

오재환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편집위원

신용철, 박미라, 박보은, 옥순주, 정재운

편집기획

소통홍보팀 최윤진, 안혜민, 김다영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을 밝혀드립니다.

CONTENTS

시선

엽

감 좋은 가을 - 박보은 04

앓

경계의 감, 혹은 느낌 - 이성희 06

무르익은 축제, 깨어나는 도시 - 김필남 10

공감, 잇다

시간, 잇다

무대 안에서 인간을 감각하는 연출가, 김지원
- 옥순주 16

공간, 잇다

<제이작업실>에서 감 잡기 - 방정아 24

사람, 잇다

감 익은 예술가들
- 박미라, 김경화, 백현주, 정광모 30



공감, 백배

행사, 잇다

부산에서 세계로, 예술이 전하는 감(感)
- 이연주 40
비파머즈 활동을 통해 만난 공연예술의 세계
- 최아영 46

정책, 잇다

2045를 향한 인류의 약속 - 박소윤 50

가치, 잇다

두근두근 너를 기다려! - 이다혜 56
눈으로 보고, 귀로 먹는 감 - 한영신 60
쓰레기를 주우러 바다에 간 게 아니다 - 신영 66

너머

시각의 향기

감의 언어, 감의 형상 - 서수연 72

작은 손길, 큰 울림

부산문화발전 위해 기부 결심한 청년예술가,
김승욱 74

감 좋은 가을

글. 박보은

유난히 감(感)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폰을 보다 고개를 들었을때 눈 앞에 물웅덩이가 있는 날이라든지, 우산을 챙겼는데 때마침 비가 내리던 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술 또한 우리를 감각하게 하고, 그를 통해 감정을 울리며, 감화를 거쳐 감응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눈으로 색과 형태를 담으며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기억이 겹쳐지거나 행복함, 그리움과 같은 감정에 스며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감정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익숙한 풍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사소한 것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 편의 연극, 한 곡의 음악이 저마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나’에게만 머무는 걸까요? 함께 공연을 본 이들과 감정을 나누고, 전시장에서 옆 사람의 호흡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울림을 주고받습니다. 이렇듯 예술이 맺어내는 감응은 공동체적 경험이자 삶의 확장입니다. 예술은 우리의 일상 속 변화를 끄집어 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힘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이 줄 수 있는 깊은 울림은 오랜 시간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예술이 완성되면 좋겠지만, 많은 시간과 여러 과정, 성숙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치 가을을 대표하는 과실(果實)인 감이 맛있는 홍시로 익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딱딱함에서 물렁함으로 부드러워지는 그 시간 속에서, 감은 여러 맛의 층위를 열어주며 우리의 입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면, 감각 또한 닦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 켜켜이 쌓이며 무르익는 감각이 있습니다. 자연의 풍파를 겪으며 익어가는 과실처럼 우리 내면의 감각도 시간을 견디며 성숙해집니다. 오랜 농익음 끝에 탄생한 작품이라는 결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성숙과 무르익음, 그리고 삶의 결실에 따른 수확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가을호는 여러 노력 끝에 가을처럼 무르익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계절을 견뎌온 예술가들의 이야기와 발자취가 담겨있습니다. 수많은 준비와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예술을 다루며, 이를 계절의 흐름과 연결짓습니다. 가을은 끝이 아닌 중간, 더욱 깊어지기 위한 성숙의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감 그리고> 또한 완성된 답만을 제시하기보다, 활동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인들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이 과실을 무르익게 하듯, 예술과 삶을 둘러싼 감각과 과정을 천천히 소개합니다. 독자와 예술가 그리고 지역이 서로 감응하며 공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가을호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예술은 가을이라는 계절의 특성을 닦아, 미완의 상태 속에서 더 짙어지고, 풍부해지며 예술인 각자의 결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감각이 열리는 순간은 예술 작품을 보는 전시장과 무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일상의 틈에도 불현듯 찾아옵니다. 예술은 우리 안의 감각을 일깨우고, 감정을 흔들며,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번 가을호가 여러분에게도 삶 속의 ‘감(感)’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박보은

디자인 스튜디오 '로크 스튜디오' 운영.
부산에서 로컬 관련 기획 및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연구를 기록하며 써내려가고 있다.

Sensation

경계의 감, 혹은 느낌

글. 이성희

Feel

조선의 대문호 연암 박지원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곤충의 더듬이나 꽃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문심(文心)이 없다고 할 것이다.”(不屑於蟲鬚花蕊者, 都無文心矣.)(연암집7 「종북소선자서」) 그는 또 그의 『열하일기』, 미지의 대륙으로 향하는 대장정의 경계(압록강)에서 “도(道)란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곧 물과 언덕의 제(際)에 있다.(道不他求, 卽在其際)”라고 하였다. ‘제’는 사이나 경계를 의미한다. 예술적 ‘감’ 혹은 ‘감각’에 대한 우리의 탐색은 아마도 연암의 이 두 마디 사이를 떠돌 듯하다.

우리의 삶이란 세계, 혹은 타자와의 끊임없는 만남의 과정이다. 그 만남의 가장 원초적인 사건이 ‘감’, 혹은 ‘느낌(feel)’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주체와 객체, 몸과 세계가 공유하는 존재론적 직물이 있다. 그것을 그는 ‘살(flesh)’이라고 하였다. ‘느낌’은 나와 세계가 만나는 원초적인 사건이며, ‘살’ 속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접촉이다. 이 접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떨림이 ‘감각(sensation)’일 것이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면, 살아간다는 것이란 그 생생한 실존의 느낌과 감각에 점차 익숙해지고 어느덧 무뎠지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은가. 천천히 모든 것이 습관적인 것이 되어가면서, 그리하여 나의 것이 아닌, 심지어 무엇인가에 의해 조직된 방식에 따라 느끼고, 보고, 듣게 되는 것이다. 나의 삶으로부터 나는 소외되어 간다.

예술의 정의가 이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반-예술’과 ‘예술의 죽음’이라는 부고장이 남발되는 시대에 누가 무엇을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한 듯하다. 예술이 굳어진 우리의 느낌과 감각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 말이다. 어쩌면, 아마 어쩌면 이것이 예술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구원이니, 영혼이니, 순수니, 사회, 역사라고 하는 고상하기 이를 데 없는 거품들을 싹 거뭇낸다면 말이다. 이젠 무슨 순수한 예술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들뢰즈는

베이컨의 회화를 해명하는 명저, 『감각의 논리』에서 예술이 감각을 재현에서 해방시켜 순수한 힘으로써 우리에게 강렬한 감성적·육체적 체험을 선사한다고 하였다. 재현에서 해방시킨다는 말은 베이컨의 회화가 추상도 아니지만 재현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지만, 우리는 ‘재현’이란 말을 ‘습관화되고 (누군가에 의해) 코드화된 감각’이란 말로 바꾸어 놓아도 될 듯하다. 습관과 코드에서 해방된 감각은 순수한 생명의 힘이 된다.

그런데 예술은 어떻게 습관과 코드에서 해방되는가? 그리하여 느낌과 감각을 다시 생생한 생명의 힘으로 약동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예술은, 위대한 예술은 우리를 경계에 서게 만들기 때문이다. 경계에 선다는 것은 전위가 된다는 것이다. 김수영의 유명한 에세이 「시여, 침을 뱉어라」를 다시 읽어보자. 어쩌면 살짝 오독이라도 해 보자.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음 시를 못 쓰게 된다. 다음 시를 쓰기 위해서는 여직까지의 시에 대한 사변을 모조리 파산을 시켜야 한다. (중략)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수영의 ‘온몸’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발가벗은 현존, 생생한 실존의 느낌이지 않을까. 자신을 지도해 줄 사변도, 익숙한 관습도, 코드도 없는 미지의 경계 앞에 선 시인의 ‘느낌’ 그것이 ‘온몸’이지 않을까. 그 자리를 우리는 전위라고 한다. 김수영 시인은 시를 쓸 때마다 시인은 항상 새로운 전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롭지만 혼자인 자리다. 그래서 그는 “자유는 고독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온몸으로 전위에 선 자의 탄식이라.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김수영의 전위는 연암의 ‘경계(사이)’와 다르지 않다. 연암은 관습적 삶을 떠나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경계(강)에서 외쳤다. 도는 경계에 있다고. 이는 미지의 세계 앞에 선

‘온몸’의 외침이며 ‘살’의 떨림이다. 경계에 설 때, 익숙한 것들은 사라진다. 낯선 것들 앞에 우리의 느낌과 감각은 예민해지고, 생생해지고, 강력해진다. 그때 우리는 ‘곤충의 더듬이’나 ‘꽃술’에 닿을 수 있게 된다. 그곳은 관습적 감각이 지나치는 자리다. 촉기가 선, 섬세한 감각, 생생한 날 것의 감각이 닿는 자리다. ‘문심’, 예술의 느낌이 열리는 자리이다. 예술은 이제 생생한 생명의 힘으로 약동하게 된다. 경계에 설 때 우리의 굳어진 느낌과 감각은 다시 활기를 띠고 다시 설레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술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랑시에르는 『감성의 분할』에서 감각적 세계가 정치적 질서에 의해 조직되고 분할된다고 보았다. 그것은 “누가 세계를 인식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감각은 그 권력에 의해 코드화되어 있다. 연암의 경계와 김수영의 온몸은 바로 이 지점과 첨예하게 부딪친다. 경계에 선 온몸은 기존의 권력에 의해 조직된 감각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느낌과 감각을 ‘결정 불가능한 지대’(들뢰즈)로 되돌려서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한다. 감각의 지평을 바꾸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들리게 한다. 그것은 실로 매우 정치적이기도 한 것이다. 가장 감각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예술은, 그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종말을 맞이했던 생명연장 장치를 달든 말든 간에, 그것은 몸 전체가 세계와 상호 감응하는 장을 새롭게 연다. 그리고 그 장을 항상 살아 있고 생생하게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감춰진 고통을 체감하게 하고, 그리고 곤충의 더듬이와 꽃술의 아름다움을 실감하게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체험하게 하지 않겠는가.

경계에서 온몸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이성희

《문예중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고, 부산대 철학과에서 장자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장자에게서 심원한 심미적 사유를 발견하고, 옛 동아시아 미학에서 가장 새로운 상상력과 감수성을 찾는 동아시아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무르익은 축제, 깨어나는 도시

- 부산국제영화제, 덜어내고 느끼다

글. 김필남



감각에서 감응으로, 스크린 너머로 확장된 축제

‘무르익었다’는 말은 곧 성숙함을 뜻한다. 양적으로 성장한 프로그램의 규모나 게스트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숙이 관객의 감각을 얼마나 확장시켰는가’일 것이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는 328편의 상영작을 선보이며 역대 최대 관객 수를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커뮤니티비프와 동네방네비프 그리고 포럼비프까지 시민이 영화에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축제의 폭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의 영화제는 대체로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선택된 작품을 선택된 관객이 정해진 자리에서 보는 것이 영화제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틀을 벗어나 도시의 감각과 시민의 감정이 서로 닿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초창기 부산국제영화제와 달리 현재 영화제는 어느 특정 공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동네방네비프의 경우 공원, 해군작전사령부, 병원, 공항, 카페 등 일상 공간을 스크린으로 바꾸었다. 굳이 해운대나 남포동에 가지 않아도 가을, 부산의 모든 장소를 영화로 채웠다. 영화의 무대가 되는 순간, 이 영화는 단순한 예술이나 축제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즉 그들만의 무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영화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커뮤니티비프 또한 관객의 참여를 예술적 경험으로 확장한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결말 토론 상영, 블라인드 시네마, 시 낭송회, GV와 라이브 드로잉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축제의 언어를 새롭게 쓴다. 이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감응의 차원, 즉 관객이 예술의 공동 창작자가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생각해 보니 부산국제영화제도 점점 부산이라는 도시를 생각하게 된 것 같다. 부산은 경계의 도시다. 바다와 산, 남과 북, 산업과 관광, 한국과 세계의 경계선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근현대사의 상흔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고, 항구는 언제나 새로운 만남과 이별의 서사를 품고 있다. 이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영화제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러한 도시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동네방네비프는 지역 커뮤니티와 협업하며 영화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고,



커뮤니티비프는 청년, 예술인, 비평가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적 예술을 도모하고 실천의 장을 만든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예술과 지역의 실질적 연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영화제의 영화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적 사건으로 재탄생하고, 시민은 관객을 넘어 도시문화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다.

포럼 비프, '묻는 축제'로서의 가능성

픽업픽업 개최되던 포럼 비프의 경우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만큼,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영화 그 자체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올해 포럼 비프는 “다시,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산업, 정책, 교육, 기술, 비평을

아우르는 아홉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때 핵심은 제목 그대로 ‘다시 묻는다’는 태도에 있다.

영화제는 하나의 축제이지만 동시에 영화라는 예술을 성찰하고 질문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영화의 미래, 아시아영화의 지속 가능성, 플랫폼의 확장과 위기, 영화 산업의 노동 구조와 불평등, 영화 교육 등의 문제들은 관객의 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질문 없이는 영화의 내일도 없다.

그동안 영화제는 종종 초청 편수나 스타 게스트의 화려함으로 평가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은 자기 반성이 가능한 축제, 즉 영화의 빛뿐 아니라 그 그림자까지 마주할 수 있는 장이다. 노동의 착취, 산업 자본의 종속, 지역 간 불균형, 글로벌 OTT의 명암처럼 다소 불편한 주제들 또한 영화제의 논의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포럼 비프는 영화와 영화제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축이라 할 수 있다. 스크린 밖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화제를 사회적 사유의 장으로 확장시키는 포럼이야말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살아 있는 담론의 공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아직은 작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지만, 바로 이런 ‘말하기’의 장이야말로 영화제가 진정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할 수 있는 축제’, ‘질문을 허락하는 축제’ 그것이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감각일 것이다.

무르익다, 감화의 시간

홍콩국제영화제나 도쿄국제영화제 등 아시아 각지에서도 의미 있는 영화제들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아시아 영화의 중심’ 그리고 지역성이라는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민간의 자율성과 비평적 담론을 함께 확장시켜온 영화제는 드물다. 영화제 출범 초기부터 거대 자본이나 국가의 개입보다는 아시아 신진감독 발굴과 지역 영화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우선시해온 부산국제영화제는 화려함보다 방향을, 규모보다 질문을 중시해온 드문 축제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는 하나의 전통이자 또 다른 전환점을 예고하는 실험의 장으로서 있다.

스타 감독과 배우들이 오고, 티켓이 매진되고, SNS에서 화제가 되는 축제는 이제 기본값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그 너머 던져야 할 질문들이 남아 있다. 축제를 통해 도시는 어떤 감각을 얻고, 어떤 감정을 공유하며, 어떤 감화로 나아가고 있는가? 부산국제영화제는 관객이 ‘와주는’ 축제에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상영 편수나 관객 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도시의 구조, 지역과의 관계, 예술과의 거리, 그리고 삶의 시간들이 축제 안에서 다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제가 도시의 공간을 새롭게 호흡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관객이 예술과 사회를 동시에 사유하게 하는 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은 감각을 깨운다. 그 감각은 종종 불편하고 낯설며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만난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영화 그 자체가 아니다. 영화를 매개로 깨어나는 감각, 함께 떨리는 감정, 그리고 우리를 바꾸는 감화의 순간이다.

무르익은 과일은 단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씨앗이 되어 다시 자라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로 서른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돌아보고, 도시와 대화하며, 예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찰의 시간’을 맞이하는 숫자이다.



김필남

2007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평론 부문으로 등단하며 글쓰기를 시작했다. 저서로 『삼켜져야 할 말들』 등이 있다.



오늘도 우리는 익어갑니다.
손끝으로 느끼고, 눈으로 담습니다.
감각이 깨어나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문화예술은 우리를 '감'하게 합니다.
작은 울림이 서로에게 전해집니다.
시간을 품고, 천천히 깊어갑니다.
순간을 머금고,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느끼고, 공감하며, 함께 나눕니다.
감은 열매이자, 울림이자, 연결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감'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무대 안에서 인간을 감각하는 연출가, 김지원

글. 옥순주 | 사진제공. 김지원



장애인문화예술이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공연을 만들고 싶다고 소망하는 김지원 연출은 장애인 배우들의 날것 그대로의 진정성을 잘 발견해내는 남다른 ‘감’이 있는 사람이다.

경계와 다름을 넘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연극으로 담고자 하는 극단 다빈나오 김지원 연출을 만나 그의 연극 작업 안에서 감각되는 ‘감’을 함께 느껴 보고자 한다.

Q 김지원은 어떤 ‘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실까요?

A 저는 ‘감각’의 ‘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의 경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며, 다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예술 안에서 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Q 다양한 공연에 연출과 배우로 출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에 배우로, 연출로 참여하셨을까요?

A 배우로는 극단 현대극장에서 연극 〈안테고네〉로 데뷔했고, 뮤지컬 〈에비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 〈장보고〉 등에 출연했습니다.

연출로는 극단 다빈나오의 〈소리극 옥이〉, 〈마치, 그라이아이〉, 국립극장 무장애 음악극 〈합★체〉, 모두예술극장 개관작 뮤지컬 〈푸른 나비의 숲〉,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 등을 만들어왔습니다.



◀〈합★체〉 포스터 ▶〈합★체〉 연습 사진 사진출처. 국립극장



Q 국립극장 무장애 음악극 <합★체>와 모두예술극장 개관작 뮤지컬 <푸른 나비의 숲>은 어떤 공연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A 음악극 <합★체>는 2022~23년 국립극장 기획 무장애 공연으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공연된 창작 작품입니다. 박지리 작가의 동명 소설을 각색했으며, 음성해설, 그림자 수어통역, 자막 등 다양한 접근성 요소를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장애인 관객들도 편안히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업이었습니다.

창작 뮤지컬 <푸른 나비의 숲>은 2023년 모두예술극장 개관 기념으로 제작되어 2024년 재공연까지 올린 창작 작품입니다. 모두예술극장과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고, 장애 예술인들이 다양한 역할로 노래하고 춤추며 무대를 채운 뮤지컬입니다. 접근성 요소는 물론, 극장 자체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 누구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Q 김지원은 어떤 사람이고 연극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신걸까요?

A 저는 다양한 사람, 언어, 소통의 방식을 통해 공연 예술을 즐기고자 여러 감각으로 창작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1993년 뮤지컬 <에비타>를 시작으로 극단 현대극장에서 배우로 첫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후 10년간 뮤지컬과 연극 배우로 활동했고, 우연히 봉사활동을 갔던 장애인 단체에서 연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 장애·비장애 예술인들과 함께 창작한 지도 어느덧 21년이 되었습니다.

연극이 독립된 예술가들이 협력해 완성하는 것처럼, 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연극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Q 네, 극단 다빈나오가 21년의 긴 역사가 있군요. 연극 작업을 해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A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배우들이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작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다 보니 저희도 나이를 먹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변화를 겪게 되니까요.

Q 처음 창단은 연출님이 대표셨고 지금은 상임 연출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극단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창단 당시에는 제가 대표였지만, 이후 극단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뇌병변 장애인 황철호 배우님이 대표를 하셨고, 지금은 시각장애인 전인옥 배우님이 대표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Q 대한민국에서 가장 밀도있는 베리어프리 연극 공연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계기로 무장애연극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더불어 극단 다빈나오는 어떻게 창단하게 되셨을까요? 다빈나오의 작품들도 소개해주십시오.

A 장애 예술인들과 오래 함께하다 보니, 저에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공연 현장에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이 많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무대의 조건이 달라지고, 함께 창작하려면 그에 맞는 소통 방식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연’으로 발전했습니다.

극단 다빈나오는 “모두 다 빈 마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시오. 세상 밖으로 나온 그대들 모두 다 빛나오”라는 의미로 창단했습니다.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각자의 개성으로 공연을 만들어가며, 단순한

‘함께하기’를 넘어 모두가 창작의 주체로 참여합니다. 다름이 힘이 되는 극단이지요.

대표작으로는 연극 <가족>,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마치, 그라이아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소리극 옥이>가 있습니다.

Q 연극이라는 공연장르가 인간의 “감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한 감각을 상실한 장애의 연기가 연극 안에서 잘 부각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인간의 감각에 대한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A 연극은 감각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감각의 결핍이 다른 감각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에 주목합니다. 무대 위 모든 요소—음성, 자막, 수어, 움직임, 음악과 음향—는 관객에게 직접 다가와 예술의 언어가 됩니다.

특히 접근성 높은 연극에서는 ‘감각의 상실이 곧 감각의 확장’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다양한 감각의 공존 자체를 무대 형식으로 삼는 것이 제 예술적 선택입니다.

Q 장애와 비장애 배우들과 함께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A 초반에는 웃지 못할 상황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암전 뒤 조명이 켜지자 시각장애인 배우들은 모두 퇴장했는데, 비장애 배우들이 무대에 남아 “우리도 야광 마킹 좀 해달라”고 불평하던 일이 있었지요.

이처럼 서로의 차이를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다른 감각으로 소통하는 배우들이 함께할 때, 그 차이가 장벽이 아니라 창작의 자원이 된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합니다.

Q 다빈나오의 대표 작품은 단연 <소리극 옥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산에서도 공연이 되었습니다. 초연부터 지금까지 몇 번, 어디서 공연을 했고, 초연 배우가 바뀌지 않고 계속 공연을 했나요?

A 소리극 옥이는 초연 이후 국립중앙극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부산국악원 등에서 공연되었고, 올해는 프랑스 플레토우 이마고에 초청되어 해외 쇼케이스도 준비 중입니다.

2017~2018년까지는 초연 배우들이 공연했고, 2019년부터는 초연 배우와 새로 합류한 배우들이 함께 무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옥이’는 이 작품의 출발점이 된 배우님이 맡고 있는데, 2년간의 설득 끝에 무대에 서시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소리극 옥이>가 프랑스 플레토우 이마고에 초청되어 간다고 하니 반갑고,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향후 다빈나오의 공연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초청 이후로 계속해서 해외 공연 계획도 있을까요?

A 올해는 프랑스 플레토 이마고에서 <소리극 옥이> 쇼케이스를 선보이고, 2026년 이마고 페스티벌에서 정식 공연을 올릴 예정입니다. 또 다빈나오 배우들과 프랑스 극단 크리스탈 배우들이 함께하는 소규모 창작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리극 옥이> 공연 장면 사진출처, 극단 다빈나오

Q 제가 서울 올라가서 봤던 공연은 <소리극 옥이>와 <마치, 그라이아미>인데 두 작품 다 시각장애인들이 주인공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A 극단 다빈나오에는 여러 유형의 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합니다.

아마 관람하신 작품이 시각장애인 배우들이 주인공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유형만을 중심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Q 최근에 공연된 <해리엇>은 접근성 높은 공연으로 직접 각색, 극작, 연출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 공연을 구상하게 되셨을까요?

A 해리엇은 한윤섭 작가의 동화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원작에 담긴 따뜻한 시선에서,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존재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옮기고 싶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언어, 감각이 달라도 함께 즐기기 위해선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서 공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예술의 언어로 관객의 감각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Q 연출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싶은 연극은 어떤 것일까요?

A 저는 모든 감각이 평등한 언어라고 믿습니다. 무대에서는 자막, 음성, 수어, 움직임, 소리 등 각각의 방식이 고유하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라이아미> 공연 사진 사진출처: 극단 다빈나오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를 넘어, 감각 자체가 예술 언어로 공존하는 무대.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제안하는 연극.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Q 혹시 부산에도 공연 소식이 있을까요?

A 극단 다빈나오 자체의 부산 공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연출한 뮤지컬 <푸른 나비의 숲>과 접근성 높은 연극 <해리엇>이 순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초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Q 끝으로 부산의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예전에 부산에서 <소리극 옥이>를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앞자리에 앉으신 80세 이상 어르신 세 분이 저신장 배우를 보시고 “재가 난쟁이지? 잘하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배우가 인사를 나오자, 세 분은 누구보다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배우는 무대 위에서 당당한 배우로 인정받고 있었고, 오랜 편견과 시선이 큰 박수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야말로 진짜 연극이라고 믿습니다. 부산 관객분들과도 자주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연출의 무대는 경계를 해체하고 감각을 확장하는 예술적 실천이다. 그의 연극은 장애와 비장애, 인간과 자연,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모든 존재가 서로의 감각을 통해 연결되는 순간을 탐구한다. 자막, 음성, 수어, 움직임, 소리와 침묵이 동등한 예술 언어로 공존하는 그의 무대는, 단지 ‘배려의 장치’를 넘어 예술의 본질적 확장성을 증명한다. 그의 연극은 다름을 소거하지 않고, 다름과 함께 호흡한다. 김지원 연출이 지향하는 세계는 모든 감각이 평등하게 존재하는 공간, 즉 서로 다른 존재들이 예술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그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기보다, 인간을 ‘감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가 만드는 무장애 공연은 그 어떤 공연보다 섬세하게 모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피는 모두의 예술공연으로 만들어진단다. 향후 우리의 모든 예술이 지향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 이 글은 인터뷰이와의 전화 및 서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목순주

연극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성장한 삶의 단상을 모아 「나의 페르소나 별이」라는 책을 냈다. 현재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로 연극을 활용한 치유적 직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기서사극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이작업실>에서 감 잡기

글. 방정아 | 사진. 권순일



감 잡았어!

탐스럽게 익은 대봉감을 청설모가 한 아름 안은 사진을 보았다. 어디선가 퍼 왔던 것인데 그 사진은 결국 나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아재 개그 같지만 한번씩 그 사진을 보면 히죽 웃는다. 어떻게 보면 화가인 나의 삶도 끝없는 감 잡기 같다.

제일작업실

오랜 시간 막연히 ‘바다가 보이는 마당 있는 작업실’을 꿈꾸었다. 그러다가 나의 미래의 작업실을 어느 날, 한 애니메이션에서 보게 되었다. <벼랑 위의 포뇨>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꼬마 쇼스케의 집이었다. 그곳은 바다마을 높은 언덕 위의 집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소박한 집의 마당 수돗가와 화초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이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르디 푸른 바다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마치 내 작업실을 당장 찾은 것 마냥 기뻐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년간 나는 어느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작업실 생활을 이어나갔고 그러다가 우연히 좌천동 언덕에서 ‘미래의 작업실’을 찾게 되었다. 2013년이였다.

그곳엔 촘촘하게 박혀있는 집들과 앞을 가로막은 아파트 숲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있었다. 시원하고 심플한 바다는 아니었지만 나를 외롭게 하지 않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내 작업실을 가로막는 숲은 아파트들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헤쳐 눌러보는 상상을 곧잘 하곤 했다. 그러면 왼쪽으로는 미8부두가, 오른쪽으로는 영도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 깜짝 놀랐고, 곧이어 드러나는 항구 컨테이너 박스들과 크레인과 정박한 뽁뽁하게 자리하는 배들이, 매립으로 팍팍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푸르게 출렁이는 물들 또한 나를 늘 매료시켰다.

지하철 1호선 좌천역 역사 내 북도에는 조선시대 좌천동을 묘사한 회화(1748년, 35.2×70.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가 걸려 있다. 이성린이 그린 <사로승구도>이다. 좌천동의 지형적 특성을 잘 살려낸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좌천동 옛 풍경이 그려진 그림을 뚫어지게 보노라면 머릿 속은 또 상상하기 시작한다. 지금과는 그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내 작업실은 어디쯤 일까 하고 한참 헤맨다. 가파르기 이를 데 없는 절벽 위에 내 작업실을 얹어



<사로승구도>

본다. 그 순간 수백 년 전과 지금의 좌천동이 빠르게 이어진다.

바다가 보이는 남향의 마당 있는 작업실, 그 작업실 찾아 헤매던 20여 년의 시간을 보상받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감사히 여긴다.

제이작업실

시간이 흐르고 작업실도 용도에 맞게 몇 번 고쳐 쓰게 되었고 또 작업량이 늘어나 작품을 보관할 독립된 수장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장고는 작업실 근처에 구하는 게 좋다고 늘 생각했던 터라 근처의 빈 집이나 세 나온 곳 등을 찾아보곤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작업실 200미터 거리의 적당한 곳에 수장고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곳은 천장이 높은 옛집으로 3층 높이의 2층 집이었다. 여러 매력이 있었다. 비탈진 지역 특유의 공간 특성상 앞은 트였으나 뒤는 막힌 이곳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다. 하지만 옛집이라 요즘 보기 드문 공간들도 있었는데 예전엔 흔했던 다락이다. 2층 다락방 벽을 철거하자 하나의 공간에 바닥 높이가 다른 두 공간이 생겨났고 입체적으로 작품 설치나 감상이 가능한 재미난 공간이 만들어졌다. 어떨 때에는 음악공연 무대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떨 땐 설치작품이 재미있게 표현되는 공간이 되었다. 그곳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장고 이외의 남는 공간이 생기자, 공간이 생기는 과정을 지켜봤던 동료 작가들이 여러 의견들을 보태기 시작했다. 나의 제2의 작업공간이자 쇼룸, 작가들 사랑방, 그러다 보니 전시장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담다 보니 <제일작업실>의 확장이자 다양한 변신의 공간으로서 <제이작업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제이작업실>의 아랫동네인 교통부 일대는 7·80년대에는 고무 공장들이 성업했었다. 아랫동네에서 집을 못 구한 그 공장 직원들은 윗동네인 이곳까지 세 들어 살기 시작하면서 이 동네도 함께 북적였다. 집주인들은 방을 쪼개고 쪼개





갤러리 제이작업실

부산시 동구 증산동로 17 2층
010-2595-3286
j2artspace

세를 내었는데, 어떤 집은 6가구가 함께 살기도 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고무공장은 옮기거나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은 신도시나 아랫동네로 이사를 갔다. 이제는 남아 흔적만 남은 방앗간, 미장원, 쌀집, 영어학원 간판 시트지가 희미하게 간신히 붙어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한적한 마을 길이 되었다.

〈제이작업실〉은 지하철 1호선 좌천역에서 〈정공단〉과 〈안용복 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을 거쳐 모노레일 타고 내려 왼쪽으로 꺾어서 산책하듯 오면 도착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 가득 안고 걸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불쑥 나타나 바다를 가려버린 고층 아파트들이 산책의 즐거움을 앗아가 버렸다. 원망스럽다.

〈제이작업실〉 건물의 옛 주인이 쓰던 절구통은 부레옥잠 가득한 작은 연못이 되었고, 이층 테라스 펜스 위에는 건물을 지키는 조형물인 고양이 두 마리(김경화 작가 작품)와 노란 옷의 두 사람 조각이 자리 잡았다.

앞 뒤로 집이 다닥다닥 붙은 탓에 뒷집에서 정성껏 키운 능소화와 빨간 장미들은 〈제이작업실〉에게 철철이 바뀌는 뜻밖의 기쁨이 되고 있다.

1층의 수장고를 제외한 한편에는 나의 어머니이자 화가이셨던 고 최홍자 화가의 기억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곳엔 최홍자 작가의 작품과 생전에 사용한 화구 및 작품 자료들을 전시 중이다. 해마다 전시 주제를 바꿔서 전시하고 있다. 2층 전시 있는 기간 중에 개방하고 있다.

2층 전시장 오른편 산자락은 그 모양도 노을도 일품이다.

동료작가들이나 관객들과 테라스에서 와인과 함께 하는 수다는 환상의 짝꿍이다. ‘해가 사라지는 시간’에서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초저녁의 제이작업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잠시 잊고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얼굴이 점점 입체감 없는 신비로운 푸른 빛으로 변하는 경험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감을 잡는 시간이다.

2022년 겨울 첫 전시로 시작한 〈제이작업실〉은 일 년에 5~6회 정도의 개인전 및 단체 기획전을 열어 왔었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성격으로의 변화를 모색 중이다. 동료 작가 및 지인들과 내용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려 한다. 다시 새로운 감 잡기를 시작한다.

방정아

일상의 부조리와 허탈한 웃음에 대한 작업을 이어 온 화가. 오늘도 복향이 내려다보이는 작업실에서 작업 중이다.

감 익은 예술가들

진행. 박미라 | 대담. 김경화, 백현주, 정광모 | 정리. 양영석 | 사진. 권순일

감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햇볕, 비, 바람 그리고 기다림이 겹겹이 쌓여 감은 무르익는다.

이번 대담은 무르익은 감으로 세상을 감각해 작품을 빚어내는,

설치미술가 김경화, 작곡가 백현주, 소설가 정광모와 함께했다.

시종일관, 잘 익은 감의 향기롭고 맛난 이야기가 펼쳐졌다.



박미라 우선 각자 본인 소개와 작품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경화 부산 중구, 원도심에서 10여 년째 설치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한복, 시멘트 페박스, 오래된 천, 자연물 등 일상의 오브젝트를 재료로 삼아 작업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스며든 재료들, 가령 나전칠기 같은 전통공예 작품들을 재료로 해서 숨은 정수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요즘에는 바느질 작업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 연약한 천들이 연결되어 단단해지고 무한대로 펼쳐지는 속성이 힘있는 사람들의 연대를 은유하는 것 같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현주 구서동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루체테 음악연구소, 부산작곡마당의 대표직을 맡고 있고, 부산지휘자 합창단 반주도 하면서 작곡 활동하고 있습니다. 극음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합창곡 작업을 좋아했는데, 내러티브가 있는 음악들, 음악과 언어가 결합된 장르에 끌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양음악을 베이스로 하지만 전통 악기에도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정광모 40대 후반까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을 하다가 40대 후반부터 소설 공부를 시작해 등단했습니다. 이모작 인생을 살게 되면서 15년째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단편집 5권, 장편소설 4권, 서평집 5권을 냈습니다. 리얼리즘에 판타지나 SF를 결합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부산의 작가들 사이에선 드문 케이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최근에 낸 작품집 『멸종과 이혼의 연대기』에는 일곱 작품 중 세 작품을 SF소설로 채웠는데, 이런 폭넓은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마음과 또 그만큼 넓은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박미라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부산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요?

김경화 또따또가 1기 작가로 입주하게 되면서 중구에 터를 잡았는데, 원도심에 있다 보니 부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연히 떠도는 이야기에만 노출되어 있었지만, 지역의 축적된 역사와 변화를 알게 될수록 부산을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자연히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회 이슈를 결합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지기도 해서, 모임을 통해 만난 분들과 부산 근대사와 특색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리적 특성에서부터 전쟁과 피난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산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빠져든 것 같아요.



백현주 부산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고 굉장히 익숙한 곳이지만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어요. 누군가 저의 근원을 물을 때, 출생지가 부산이라는 걸 언급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른 계기로 부산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됐어요.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지만 그 번영의 뒷면에는 여러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요.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수난을 겪었죠. 그 속에서 진주 같은 매력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비로소 부산을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정광모 부산은 역사적으로 개방과 교류를 담당해 왔어요. 담배, 고구마와 같은 타지의 작물이 동아시아 해역을 통해 옮겨진 역사성을 지니고 있죠.

부산은 열려 있습니다. 대양을 통해 지구라는 행성의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요. 그런 이미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그 이미지는 제 소설에도 녹아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은 제 생활의 터전임과 동시에 작품의 기저에 견고하게 깔린, 세계관의 기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미라 여기 모인 분들은 이번 호의 주제인 '무르익은 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좋은 싫든 '중견 예술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중견 예술가로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백현주 고백하자면 저는 후배였던 적이 없어요. 서른다섯에 작곡을 시작했는데, 어어? 하다 보니 어느새 중견 예술가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후배의 자리에서 선배에게 배우거나 도움받은 기억이 없으니 억울하기도 해요. 하지만 마냥 투정만 부릴 수 없는 것이, 다른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음악계는 더더욱 다음 세대의 소멸이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랄까,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은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이신 한형석 선생님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분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상처받고 방치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분이라, 음악에도 그런 정서가 녹아있거든요. 작업을 하면서 후배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진 예술가이고 싶습니다. 짧은 감이라 불려도 좋아요. 신진 일래요.

김경화 백 선생님은 작곡을 하시니, 함께하는 작업이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책임감도 막중하실 것 같은데, 저는 중견 예술가로서 어떤 영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현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쪽 그래왔던 것은 아니고 또따또가 작가로 입주하게 되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등 나름의 활동을 해왔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단체 활동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한 뒤 예술가 개개인으로서 중심을 옮기게 했어요. 백현주 선생님처럼 뭐라도 하자, 결심을 하고 고민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자기분열적인 상태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정광모 중견 작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신에 작가들과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를 고민하는 것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경험담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중국 소설을 한 편 읽었는데, 그 속에 묘사된 어느 장소에 가보고 싶단 열망이 끌어 올라 막무가내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결국 중국의 어느 강, 물이 굽이치는 장소에 서서 작품을 곱씹었죠. 중견 작가들의 역할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 해요. 신예작가들이 기발한 착상과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분해한다면, 중견 작가들은 그간의 경험을 작품에



녹여 현실을 마주하는, 나아가 직접 참여하고 싶게끔 하는 작품을 쓰는 거죠. 부산에 터 잡은 중견 작가라면 40계단을 소재로 하는 글을 쓴다거나 부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제 소설집인 『작화중 사내』의 「기억 금지 구역」이라는 작품이, 조금이나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라 오늘 모신 세 분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통과 현대, 리얼리즘과 판타지, 동서양 등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백현주 아마 제가 나혜석 선생님의 작품을 할 때, 전통 음악가들과 협업한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전통음악에 조예가 깊지 않아요. 가끔 저를 전통음악과의 협업을 전문으로 하는 음악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웃음) 제 작업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돼요.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신선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그 호기심을 거침없이 해소할 계획이에요.

김경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개장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저 역시 자개장에 대해 조예가 깊은 건 아니에요. 처음엔 고도의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이 외면받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자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자개에는 민중들이 소망하는 건강, 부귀의 의미가 녹아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의 신화적 작품이 아니라 이름 없는 민중이 그려낸 그림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거든요. 자개 장인 분들을 찾아가서 기술적인 도움도 받고 그 과정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있지만, 평생 다듬은 기술을 감히 따라



할 수는 없더라고요. 따라 할 수 없기에 협업이 더 매끄러웠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업이 뜻깊었어요. 작업하는 저도, 제 작품을 보는 관람객도 낯선 것을 접할 수 있으니 제 융합은 나름의 소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정광모 저는 기본적으로 리얼리즘과 SF판타지가 같은 작품 속에서 교류하거나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융합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융합은 필연적인 거예요.

리얼(Real), 현실이란 뭘까요? 현실을 느끼는 우리 뇌는 두개골 속에서 바깥으로부터의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신호를 기반으로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과연 현실은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순간조차도 현실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현실이 곧 소설이고 소설이 곧 현실이니 소설 자체가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 서거나 그 둘을 섞어 만들어지는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소설은 판타지와 현실이 어울려 만들어진 또 하나의 현실인 거죠.

박미라 예술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정광모 지금은 AI의 문제점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나 제미니 같은 AI는 웹에 떠도는 정보 중 확률이 높은 것을 선별해 배열하는 수준이라,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완인 거죠. 그럼에도 제조업이라든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AI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에 인간이 행하던 예술이 대체되는 시대가 온다면 예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재정의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주 음악계에도 AI를 두고 논쟁이 많아요. 몇 년 전부터는 연주하고 작곡하는 AI가 음악가들을 위협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AI시대 예술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도 자문하기도 했죠. 제 주위의 음악인들은 대체로 AI가 우리 삶을 위협한다면 반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최고의 결과물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술은 향유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사교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음악회라는 공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AI에 반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경화 미술계는 다양한 매체를 다루고 있어요. 이미 AI를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작가도 많고, 저처럼 잘 모르는 작가도 있어서 사실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AI가 보편화된다고 했을 때, 인류가 존립하는 데 필요한 상당 부분의 노동을 AI가 대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인류가 노동에서 일정 부분 해방되고 예술적 발전을 이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노예제 시대에 노동의 책임이 없던 자유민들이 철학을 향유하며 학문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듯이 AI의 보편화는 예술사 진보에 큰 획을 그을 것 같아요.

박미라 끝으로, 세 분이 함께 모인 기회에,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광모 먼저 김경화 작가님께, 자개는 물론 시멘트로도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경화 시멘트는 도시를 이루는 주재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으로 도시에서 소외당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건 인간일 수도 있고 길고양이나 비둘기 같은 연약한 생물들일 수도 있죠. 같은 맥락으로 오래된 천을 활용해서 작업하기도 해요.

정광모 백현주 작곡가님, 서양음악과 국악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양쪽을 넘나드는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작곡마당’이라는 모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백현주 전통악기(국악)를 작업한 것은 새로운 소리에 대한 호기심, 신선함을 느껴서였고요. 관심이 깊어지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받고 공부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작곡마당’이라는 단체는 작곡가들의 모임인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작품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 작곡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김경화 백현주 선생님께, 한형석 선생님에 대해 여쭙고 싶었는데, 앞선 문답에서 궁금증이 해소되어 마지막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웃음)

백현주 정광모 작가님께서 15년 동안 책을 아주 많이 내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다작하려면 작업 페이스가 남달라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마감의 힘을 빌려서 글을 쓰는데, 작가님의 집필 스타일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광모 저는 작품을 상당히 일찍 씁니다. 청탁을 받으면 마감 보름 전에는 완성하는 편입니다. 가끔은 청탁이 없어도 글을 써 놓곤 합니다.(웃음) 일정을 스스로 조정하는 이유는, 문학이란 분야가 퇴고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장편소설의 경우는 한 번 고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마감일에 맞춰 작업하겠다고 계획하면 만족할 만한 퇴고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박미라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과 개인적 목표를 밝히는 것으로 오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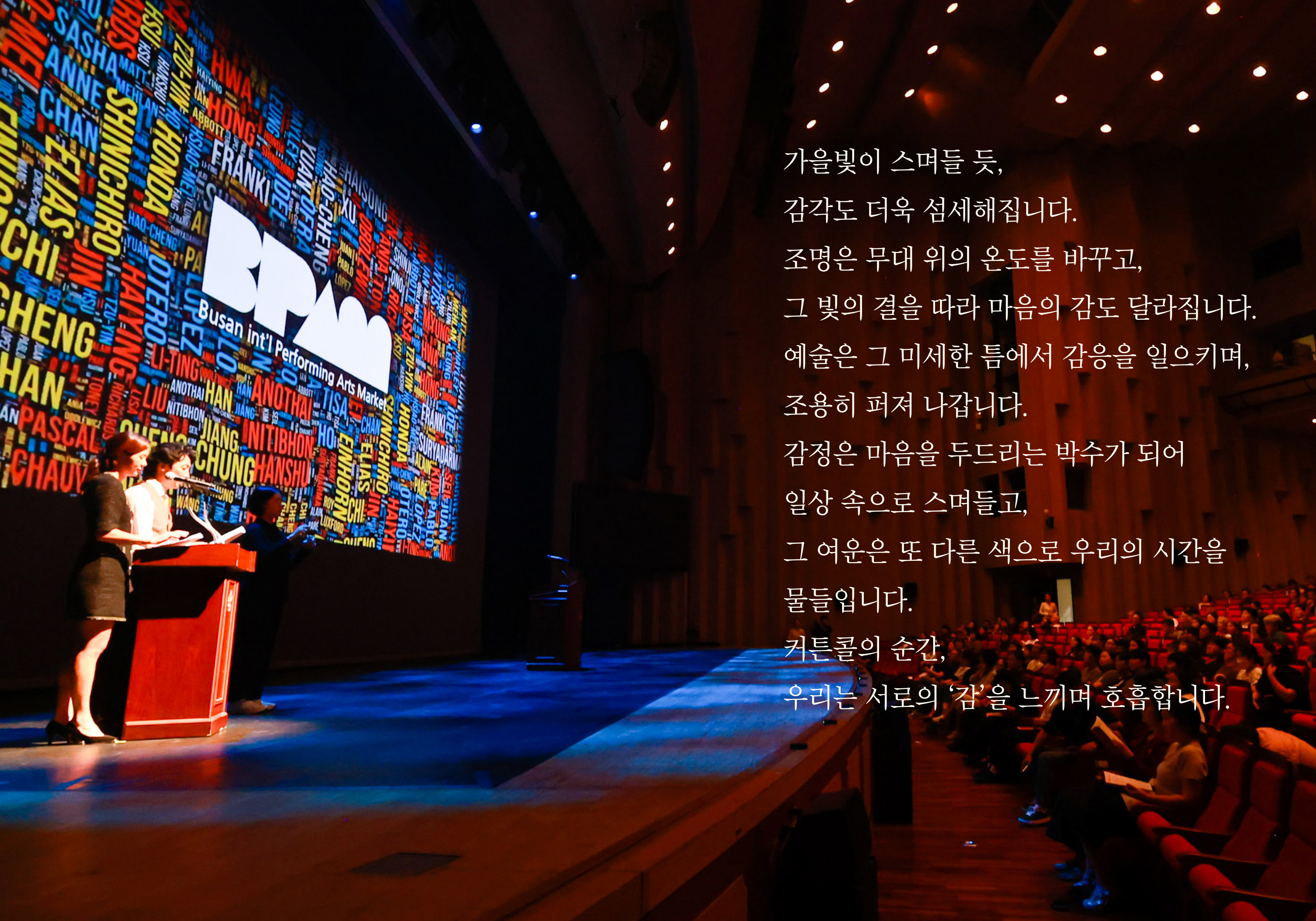
백현주 작업의 측면에서는 그때 그때 하고 싶은 작업과 해야 할 일을 균형 있게 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후배 예술인들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화 최근에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막식 공연을 보고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광주, 제주, 대구 같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 동등한 지위로 연계하고 협업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은 세계적인 것을 차용하는 것에 치중하는 느낌이에요. 부산다운 작품을 세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주지하면서 관심사가 비슷한 작가들과 공부하고 이야기하며 작업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정광모 도시의 정체성은 역사와 문화, 기억에 의존합니다. 부산은 바다와 강과 산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보기 드문 자연 친화 도시예요. 거기에 부산만이 가진 문화적 색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시를 경영하는 행정, 정치 분야에서도 부산 색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방향으로 가열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박미라
달콤, 씹쌀, 오싹, 포근한 이야기를 찾아 오늘도 두 눈에 불을 켜고 모험을 나선다.
「다정한 고랄라 목욕탕」, 「별이와 북극여우」, 「오만대삼총사의 대모험 1, 2」 등을 썼다.



가을빛이 스며들 듯,
감각도 더욱 섬세해집니다.
조명은 무대 위의 온도를 바꾸고,
그 빛의 길을 따라 마음의 감도 달라집니다.
예술은 그 미세한 틈에서 감응을 일으키며,
조용히 퍼져 나갑니다.
감정은 마음을 두드리는 박수가 되어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그 여운은 또 다른 색으로 우리의 시간을
물들입니다.
커튼콜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감'을 느끼며 호흡합니다.

부산에서 세계로, 예술이 전하는 감^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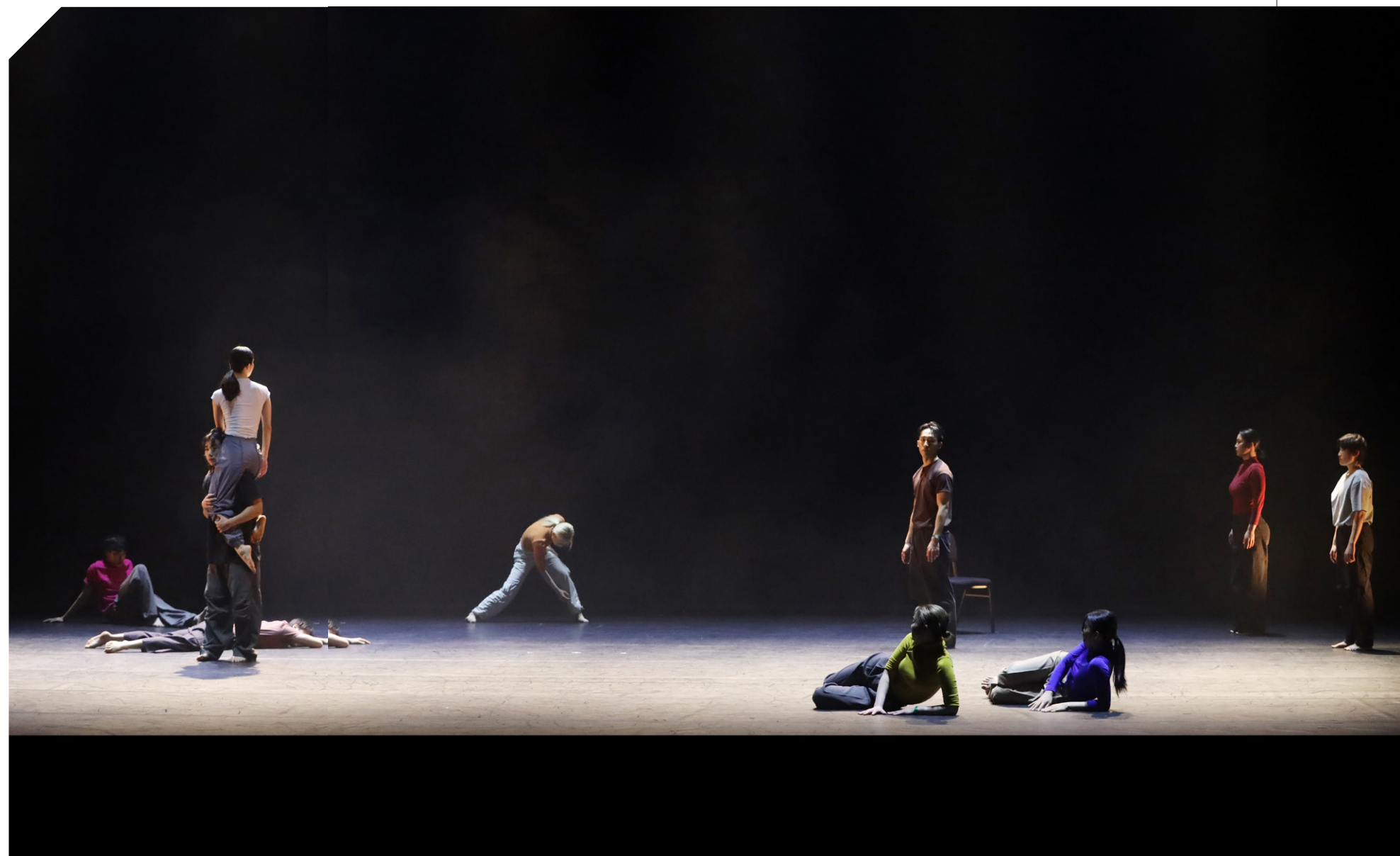
- 현대무용단 '자유'의 BPAM 여정

글. 이연주

2023년 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BPAM Choice 쇼케이스>를 통해 처음으로 이 행사를 접했을 때, 우리는 지역 예술계가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지만, 그만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경험이었다. 부산문화재단이 주최한 BPAM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공연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새로운 플랫폼이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진 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은 울림을 남겼다.

BPAM은 공연예술 작품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외 기획자와 예술가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일반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마켓의 형식은 공연예술을 사회 속으로 끌어들이며, 관객의 관심과 호응을 새롭게 이끌어냈다. 전문적인 산업 관계자들의 만남뿐만 아니라,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무대가 마련됨으로써 관객은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누리고, 예술가들은 창작에 대한 신선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은 단순히 작품을 거래하는 자리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공연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마켓들이 존재하지만, BPAM은 부산이라는 도시만의 특성과 개방성을 살려 시민과 예술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독창적인 장을 만들어냈다. 아비뇽 페스티벌이나 서울아트마켓(PAMS)처럼 유통 중심의 구조를 넘어서, 시민 참여와 현장 체험을 강화하여 지역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지닌다. 무대와 부스, 학술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부산은 단순한 개최지가 아니라, 아시아 공연예술 교류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BPAM의 가장 큰 성과는 ‘연결’에 있다. 예술가와 기획자, 지역과 세계, 무대와 시민을 잇는 연결이 이곳에서 실현되었다. 한 작품이 해외 초청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협업의 계기로 확장되며, 부산이 국제공연예술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역 단체들의 작품이 해외 프로그래머에게 소개되어 국외 무대로 나아가고,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새로운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BPAM이 지닌 실질적 의미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순수예술이 지닌 한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층위의 관객과 만나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했다.

현대무용단 ‘자유’는 1995년 창단 이래 부산을 기반으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 온 전문 무용 단체이다. 부산의 자연과 장소성을 무대의 배경으로 삼아 야외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참신한 안무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지역 무용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2021년 국제안무가육성공연 AK21에서 「밀고 당기기」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제31회 부산무용제에서는 「They Live」로 대상, 안무상, 우수 무용인상을 받아 전국무용제에 진출해 은상을 거두었으며 이어 최근 열린 제34회 부산무용제에서는 우수상과 우수무용인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단체의 예술적 역량을 입증했으며, 최근에는 서울과 해외 무대까지 활동을 넓히며 부산을 대표하는 현대무용 단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현대무용단 ‘자유’는 2023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4년 제2회, 2025년 제3회까지 BPAM에 매회 참여하며 무대와 부스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매년 축적된 경험은 단체의 활동을 한층 확장시키는 발판이 되었고, 올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BPAM 쇼케이스>에서는 ‘침묵’을 주제로 한 작품 「Obscured Silence」를 선보였다. 작품은 말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전하는 ‘침묵의 힘’을 탐구하며

관객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일반적으로 침묵은 단순히 소리나 소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우리에게 침묵은 고요한 평정심이자 억눌린 분노, 깊이 가라앉은 절망,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굴욕 등 다양한 감정을 품은 다층적 상태였다. 각자가 지닌 침묵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는 말보다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 우리는 침묵이 발현되는 순간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질문들과 새로운 탐색을 만나게 되며, 대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움직임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과정을 실험하고자 했다.

작품은 또한 현대 사회의 과잉된 언어 환경에 대한 성찰이기도 했다. 정제되지 않은 수많은 말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며, 참과 거짓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통해 관계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Obscured Silence』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물러서 타인과 사회를 주의 깊게 관찰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침묵 속에서 더 나은 소통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제시한다. 고요와 절제,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응시를 통해 춤은 언어를 넘어선 또 하나의 소통임을 드러냈고, 관객과 해외 관계자들이 함께 호흡하는 순간, 예술이 나눔과 교류의 장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체의 성과이자, 동시에 BPAM이라는 무대가 마련해준 기회의 결실이었다.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부스에서의 만남도 의미 있었다. 작품을 설명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획자들은 지역에서 시작된 창작물이 어떻게 세계 무대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고, 우리는 우리의 예술적 고민과 방향성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이러한 대화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서로의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부산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세계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BPAM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BPAM에서 경험한 것들은 부산 공연예술의 현재를 보여줌과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고 실험적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지는 현장은 부산을 공연예술의 교류지로 만들어가고 있다.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는 또 하나의 길이 되어준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리가 예술가와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점에서, BPAM은 단순한 마켓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가을호의 주제처럼,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은 ‘감(感)’의 여정이었다. 설렘의 감각에서 시작해 교류의 감응으로 이어지고, 성찰의 감화와 성과의 결실로 맺어졌다. 앞으로도 부산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이 무대가, 예술의 울림을 더욱 깊고 넓게 전해주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부산문화재단이 마련한 이 자리를 통해, 부산 공연예술은 더 큰 무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연주

현대무용단 '자유' 대표.
안무가 이연주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며 느낀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고 친숙하게 풀어내고자 한다. 관객들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작품을 표현해내는 무용수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작업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비파머즈 활동을 통해 만난 공연예술의 세계

글. 최아영



“예술은 일상생활의 먼지를 털어낸다.”

비파머즈 활동은 제게 이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국제공연예술마켓이라는 낯선 현장에서 통역과 안내를 맡으며 작은 도움을 보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라는 이름 너머에 있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단순한 행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규모와 의미는 제 기대를 훌쩍 넘어섰고, 비파머즈 통역팀으로 함께한 순간부터 이 여정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의 청년문화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비파머즈(BPAMERS)’라는 이름을 접했습니다. 홍보 글을 작성하며 국제공연예술마켓이 지닌 의미를 조금씩 알아갔고, 그 과정에서 ‘이 무대의 한 조각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통역팀에 지원해 참여하게 되었고,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자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봉사활동은 김해국제공항에서 델리게이트를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첫인상을 전하고 싶어 환영의 인사를 건넸을 때, 긴 비행 끝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예술을 이야기하던 그들의 눈빛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자신의 예술을 설명할 때 반짝이던 눈동자는 지금도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춥니다.

픽업 차량을 기다리며 부산의 음식과 맛집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전문가 같다”며 웃어주던 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차량이 지체되어도 지루하지 않게 이어졌던 대화는 지역 문화를 매개로 피어난 또 하나의 교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연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멀리서부터 웃으며 달려와 주시던 모습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동등한 동료로 바라보고 기억해 주는 그 시선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작품을 개발하기 위한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델리게이트와 공연 관계자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고, 공연이 너무 좋았다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공연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을 맡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가 없는 야외 공연이었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펼쳐진 예술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리웨이의 ‘미스 안티포드’ 공연은 시민부터 외국인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웃고 즐기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광경은 ‘예술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것’임을 다시금 일깨워주었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예술의 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저는 공연예술이 무대 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델리게이트와 아티스트, 기획자와 스태프, 그리고 자원봉사자인 비파머즈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모아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조각으로 함께할 수 있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해외 델리게이트와 소통하며, 무대 밖에서 이어지는 교감 속에서 저는 어느새 ‘관람객’이 아닌 ‘참여자’로 서 있었습니다. 예술은 단지 무대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살아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봉사로 시작했지만, 결국 제 안에 쌓였던 일상의 무거운 먼지를 털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덕분에 다시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예술의 치유와 교감의 힘을 새기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나누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분주한 가운데서도 발대식과 사전교육부터 현장까지 비파머즈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신 강현우, 진다인 담당자님과 모든 스태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 덕분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아영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 무지개를 이루듯,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꿈꾼다.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학도이다.

감동을 전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문화회관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모여 예술로 교감하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무대를 바라보며 웃고 감동하는 마음은 같다는 사실, 그 순간 예술은 언어보다 깊은 대화임을 실감했습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유라시아 플랫폼 안내데스크에서 활동했습니다. 델리게이트들에게 셔틀버스 시간을 알려드리고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한국어로 “괜찮아~”라는 말을 배워 마주칠 때마다 건네주셨는데, 다정하게 들려온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였고, 큰 힘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뒤섞여 오가는 국제 행사 속에서도 그 짧은 한국어 한마디가 가진 따뜻함은 오래도록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부산역에서 진행된 거리예술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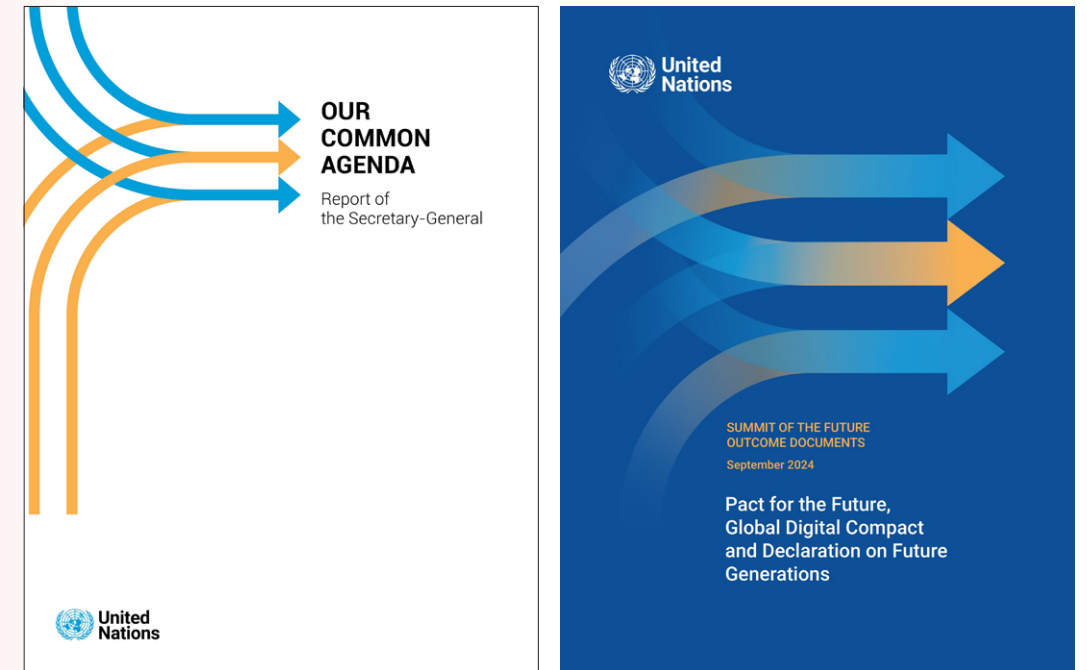
2045를 향한 인류의 약속

-글로벌 어젠다와 부산 문화정책의 공진화-

글. 박소윤

인류의 목표, 2045

유엔은 밀레니엄을 맞아, 인류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공동 의제를 채택하였다. 15년 단위로 추진된 첫 번째 의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로, 전 세계 빈곤 감소와 인간의 기본적인 질 향상을 지향하였다.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담은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설정되었으며,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성을 바탕으로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위기까지 심화되면서 목표 달성은 큰 난관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인류는 다시 세 번째의 목표, 2045년 유엔발전어젠다를 향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 보고한 「Our Common Agenda」¹⁾와 2024년 9월 유엔 총회와 병행해 열린 Summit of the Future에서 채택된 「Pact for the Future」²⁾가 그것이다.

「Our Common Agenda」는 평화와 국제 협력 재구축을 제안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가속화, 디지털 협력 및 신기술 거버넌스 구축, 미래 세대와 청년 세대 보호,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 등 지구 공동체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 규범과 제도를 구상하였다.

「Pact for the Future」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위기, 지정학적 갈등, 디지털 전환이라는 현 상황에서 평화·안보, 디지털, 청년·미래 세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1) UN, 「Our Common Agenda」, 2021.

2) UN, 「The Pact for the Future」, 2024.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국제 협력 규범인 「Global Digital Compact」와 미래 세대의 권익을 국제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두자는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국제 협력 복원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긴급 현안에 대해 구체적 목표나 재정적 약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2016년 유엔 해비타트 III 「The New Urban Agenda」가 천명한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와 같은 대담한 구상이 이번에는 나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복잡한 국제 권력 구조 속에서 ‘모든 국가를 위한 UN’이라는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웠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Pact for the Future」 의결 과정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방해나, 2025년 12월 31일 자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24 부산문화컨퍼런스 국제포럼

부산 문화정책과 실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전 영역이 초연결된 지금, 글로벌 정책은 지역문화예술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역시 글로벌 환경에 파급력을 갖는다.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한국 2035」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콘텐츠 산업 혁신, AI 기반 전환, 글로벌 문화 리더십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Pact for the Future」가 강조한 지속가능성 강화, 디지털 전환, 청년·미래 세대 지원과 맞닿아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접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연계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SDGs 가속화는 지역의 문화유산·공동체 중심 발전으로, 디지털 전환은 지역의 디지털 문화 접근권과 창작자 권리 확대로 연결된다. 청년·미래 세대 지원은 지역 청년의 문화 참여와 정책 강화로, 평화·인권·다양성은 지역의 문화다양성 존중과 이어지며, 경제지표 개혁 부분은 문화적 웰빙과 창조경제 반영으로 닿아있다.

실천의 자장에서 보자면, SDGs 가속화는 문화유산 보호, 포용적 사회 조성,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부산문화재단의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사업, 어린이 무형문화유산 교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Global Digital Compact」는 디지털 접근권 확대, 윤리적 AI, 데이터 공유 등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곧 디지털 문화콘텐츠 접근성 제고, 창작자 권리 보호, 온라인 문화교류 촉진과 연결된다.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8월 네트워크 포럼 〈궁리정답〉을 통해 ‘AI×ART: 새로운 창작의 시대-지역문화예술과 인공지능의 공진화’를 주제로 논의하며,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서 과학기술 융합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에서는 청년의 권리와 기회를 강조하며, 청년 문화예술 활동의 확대를 예고한다. 부산의 청년문화육성 사업과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은 청년들의 문화적 표현과 활동 영역을 넓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Pact for the Future」가 강조하는 평화·안보 및 인권 보장은 문화다양성 존중, 표현의 자유, 소수자·이주민 문화 권리 보장과 연결되며, 이는 지역 차원의 문화다양성 사업에서 더욱 정교하게 구현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Pact for the Future」에서는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지표 도입을 추진한다. 문화·창의산업은 삶의 질, 사회적 연결성 등 새로운 지표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분야이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2023년부터 공연예술마켓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창작(생산)-마켓(유통)-향유(소비)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시장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 창의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Our Common Agenda」나 「Pact for the Future」는 2045 유엔발전 어젠다의 최종안은 아니다. 다만 그 도출을 위한 경로이자 중간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Pact for the Future」는 앞으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이다.

부산의 문화정책 역시 「부산문화재단 2035 비전」과 「제3차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 글로벌 의제와 지역 의제는 지구 공동체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며, 씨줄과 날줄처럼 맞물려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완성해 가는 것이다.

조약(pact)은 국가 간의 계약으로, 약속보다 단호한 당사국 간의 결심을 보여준다. 지지부진한 SDGs에 박차를 가하자는 계약, 지구 생물과 인류가 공존하도록 노력하자는 계약, 미래 세대를 지키자는 계약에 부산도 함께 한다.



UN 79차 총회 전경(사진출처: UN)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 사람·담론·현장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박사논문 「지속가능발전과 도시문화정책: 부산 문화현장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회복 함의」, 소논문 「음악 용어의 탈식민성: '번역되기'에서 '번역하기'로: 금수현의 『표준음악사전』을 중심으로」, 「신무용과 부산」 등을 발표했으며, 지난 1년간 부산문화회관 「예술의 초대」에 「여기, 예술」 시리즈 칼럼을 쓰기도 했다.

두근두근 너를 기다려 !

글. 이다혜



작은 심장에 닿는 사랑의 멜로디 ♪ 두근두근 자장가 프로젝트를 좋은 문화 병원 임산부 지원센터 플래너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저희 부부에게 참여기회가 와서 뜻깊은 시작을 하게 되었지요. <두근두근 너를 기다려> 자장가 프로젝트는 부모가 직접 만든 자장가를 통해 태아와의 사랑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연결하며, 이를 통해 따뜻한 육아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참여로 지역문제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처음 접하는 경험이다보니 설레는 마음으로 첫 만남을 기다렸어요. 저의 전공은 뮤지컬로, 노래 및 표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다른 참여자 분들과 주치자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지 그리고 자장가 프로젝트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 우리만의 노래가 만들어지는지 정말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 참여자분들은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인 분들이셨고, 저와 똑같은 초산모님 한 팀과 벌써 아이가 2명이나 있으신 출산, 육아 대선배님들 세 팀이 계셨어요.

그때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저 노래만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로의 임신 과정과 출산 및 인생 경험들을 교류할 수 있는 멋진 소통의 장이라는 것어요.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주셨다는 것이 체감으로 바로 느껴질 수 있게 자리 배치부터, PPT 자료, 부가적인 악세사리 및 직접 준비해주신

간식과 매끄러운 진행 등등 부산문화재단과 예술교육단체 선생님들의 열정과 애정이 대단했답니다. 즐거웠던 첫 시작이었어요. 보통은 설렘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이 큰데 두근두근 자장가 프로젝트는 참여하면 할수록 더욱 기대되고, 매번 다음 참여가 기다려지는 기승전결이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체 회차는 5회로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1회씩(2시간) 참여자 전부와 만나 뵈면서 OT 및 작사, 작곡, 디지털 앨범교육, 가창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이 기틀을 토대로 10월에는 본격적으로 음원 녹음을 진행하고 최종 앨범 제작이 완료되면 쇼케이스(음원 발표회)를 열게 되는데요. 저는 첫 회차 때의 즐거움을 짝꿍과 함께 느끼고 싶어서 남편에게 휴가를 권유하여 2회차 교육 때는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회차에는 작사에 기반이 되는 ‘아이에게 쓰는 편지’ 과제가 있었는데 남편과 주말에 써둔 편지를 함께 읽으며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새 임신중이라 호르몬이 불규칙해져서 그런지 감성이 깊어졌는데 편지를 읽는 내내 자꾸 울컥울컥... 남편이 옆에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도저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끝까지 못 읽었을 것 같아요. 남편 및 가족, 지인 참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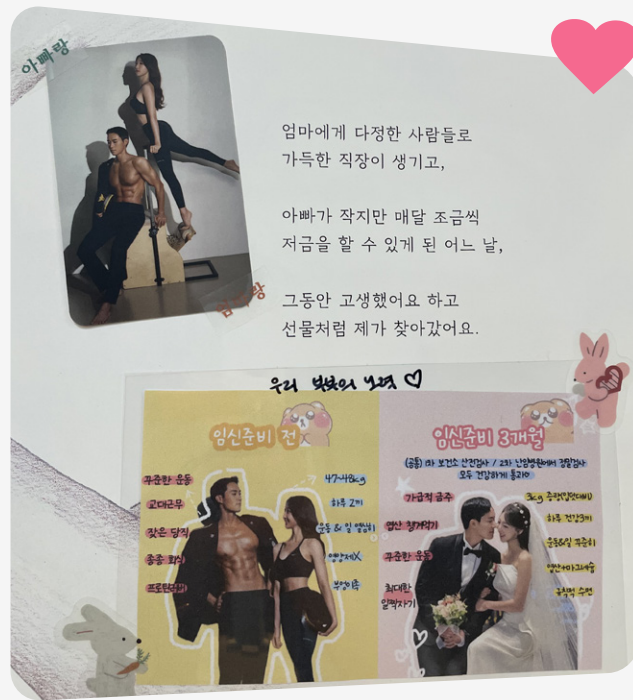
자유로운 자장가 프로젝트여서 참가에 대한
강요나 부담은 전혀 없지만 이 순간 제 옆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참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기반으로 아기 소식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올랐는지, 아기를 기다리며 자주 느끼는 감정과 아기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운 점이나 기대되는 점에 대해 감정 카드로 감정 키워드를 찾아 나서는 시간을 가졌는데도, 저희는 ‘설렘’과 ‘행복’, ‘반가운’ 마음이 가장 큰 키워드였습니다.

찾은 키워드를 토대로 노랫말 창작하기
연습을 진행했는데 가수 이한철 - 슈퍼스타
노래를 토대로 개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에는 한 팀씩 가벼운 가창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시간이 참 좋는데 무대공포증이 있는
남편에게는 정말 떨리는 일이었나 봐요. 원래 이
정도의 음치 박치가 아닌데 엄청난 노래 실력을
뽐내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즐거운
에피소드가 생겼어요.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하. 남편이 다음번에는 더 잘 부를 수 있다며 열심히 이를 갈고 있네요 ㅎㅎ

다른 팀들은 저희 부부와 다른 부부 1팀을 제외하고 다들 혼자 오셔서 단독으로 노래를 부르셨는데 생각보다 떨려 하셨지만 덤덤히 잘 부르셔서 서로의 목소리와 노래 실력을 알 수



있던 아주 유익했던 가창 시간이었습니다.

3회차 수업 때는 2회차 때의 편지를 기반으로 한 가사를 토대로 리듬을 입히는 작곡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희망하는 노래 레퍼런스와 스토리 라인(편지)를 기반으로 AI를 이용하여 작곡을 진행해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수 보라미유_ 사랑의 방식이라는 노래를 기반으로 편지에 있는 저의 마음과(엄마) 아빠 마음을 녹여서 파트를 나누어 각각의 이야기기로 진행하기로 1차 계획을 했고 음악 구성으로 장르는 팝적인 요소(멜로디 중심, 대중적 코드), 분위기는 보컬 중심의 서정성을 섞어서

노래 속도는 80~95bpm으로 여유로운 템포에 후렴구나 브릿지에서 감정이 살짝 고조되고 소리에 더 힘을 주는 고음 부분이 있거 편성하는 방법으로 1차 계획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풀어쓰니까 거창하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친절히 다 도와주시고, AI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적척 분석해주기에 단 하나의 어려움 없이 작곡의 초석까지 쉽게 왔답니다. 4회차에서는 사전에 나눠주신 『기쁜 눈물』이라는 동화책을 나만의 또는 부부만의 스토리로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이 숙제를 진행하는 동안 남편과의 연애시절 스토리, 그리고 결혼식에 이르러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된 결과까지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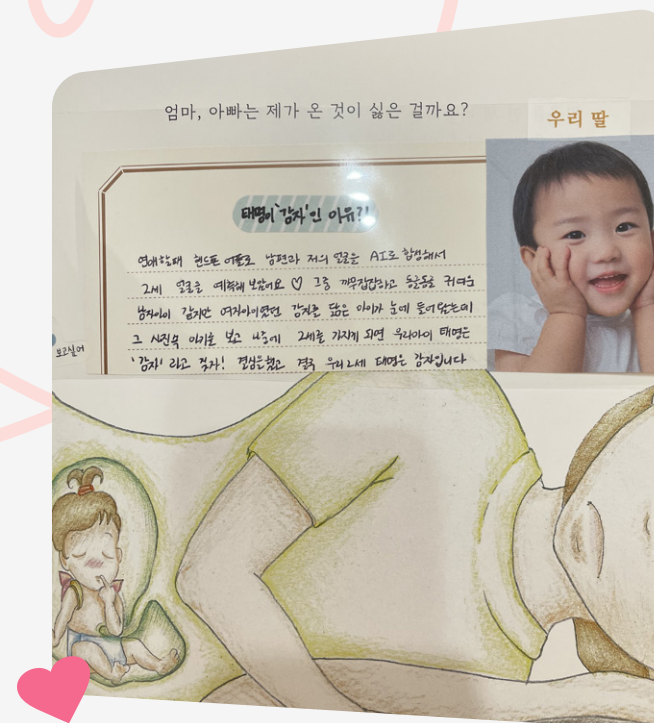
추억을 되짚어 보면서 그때의 감정과 상황들이 떠올라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노래만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남편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가족애가 더 생기는, 그런 느낌!! 아기 태교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태어날 저희의
아기에게 특별한 스토리와 사랑이 들어있는 이
동화책을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뜻깊을지 벌써 설레오네요.

이제 이 특별한 동화책을 토대로 키트 앨범
제작이 완성될 예정이랍니다.

정말 특별한 우리만의 앨범이 제작될 생각에
매회 참여가 즐겁고, 옆에서 저희의 노래 제작
과정을 지켜보신 시어머니께서도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녹음하는 날 즉흥으로 같이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들까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까지 이어지는 멋진 자장이 프로젝트라서
굉장히 보람찬 작업에 참여한 느낌이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한 번에 똑딱 완성되는 그런 쉬운 과정이 아니라 가을이 되어 점차 감이 익어가고, 추수가 시작되듯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아름답게 결실을 맞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음원이 나오는 날까지 함께 기다려주세요.



이다혜

음악을 사랑하는 뮤지컬 전공자로서, 예술의 감성을 몸의 움직임으로 전한다.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로서, 많은 이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먹는 감

글. 한영신



반갑습니다. 이번 자장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예술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임산부 한영신입니다. 저를 한 문장으로 소개해 본적은 오랜만이라 어떻게 적을까 고민이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취지처럼 '노래를 사랑하는 임산부'라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담백히 적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가을, 자장가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까요?

태몽에서 시작된 노래, 황금이와의 첫 여정

저는 좋은문화병원에 진료를 다니기에 자연주의 출산센터(LTC) 담당자님께 소식을 전해 듣고 병원추천으로 거의 막차를 타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노래를 평소 듣는 것도, 부르는 것도 무척 좋아했지만 한 번도 '직접 만들어볼까?'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기에 가보지 않은 길이 꽤나 어렵거나 복잡할까 살짝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프로젝트의 규모도 상당히 커보였거든요. 근데 그래서였을까요 이런 걸 지금 안해보면 언제 해봐? 라는 마음과 결정적으로 황금빛 새들이 온 집에 동지를 틀고 노래를 부르던 배 속 아이의 태몽에 이끌려 운명인가보다! 하고 짧은 망설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황금이와 함께 노래를 만들고 느낀다면 무척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차올랐거든요.

엄마와 아기가 함께한 자장가 창작의 기록

그렇게 참여하게 된 멋진 프로젝트! 저에겐 설레는 낯선 기분이 열정으로 다가왔는데요.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매주 화요일)

- 1차: 참가자들 자기소개와 인사를 통한 마음열기, 전반적인 일정 소개
- 2차: 배 속 아기에게 적어 온 편지 낭독, 이를 기반으로 작사 노트를 활용한 가사 추출
- 3차: 만들 노래의 전체적인 가사 틀 확정
- 정해진 대중음악 가이드곡을 기반으로 SUNO를 활용해 시 곡 뽑아보기 연습
- 4차: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쇼케이스에 전시될 '기쁜 눈물' 책 제출
- 제작될 앨범 구성 소개 및 CANVA를 활용한 포토카드 디자인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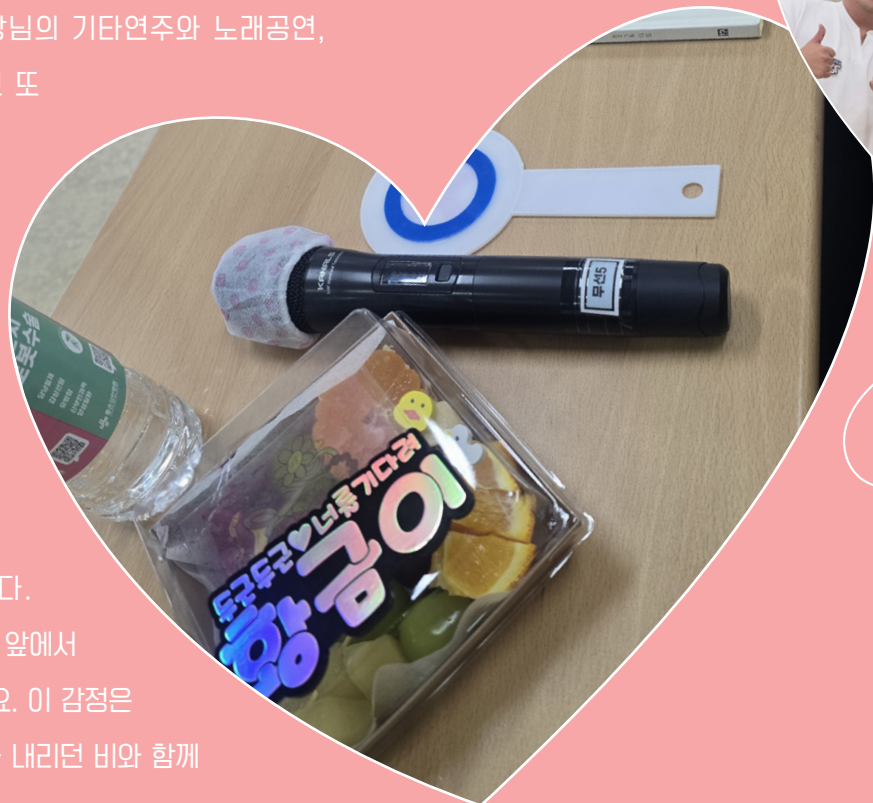
5차: 작곡가 및 예술인 분들과 함께 확정받은 본인 노래 전원 가창 연습
주제곡 불러보기 및 파트 나누기
10월 1~10일: 가족별 녹음실에서 1차 리허설 (기기사용법, 노래연습 등)
10월 12일, 19일: 팀 별 스케줄에 따라 실제 녹음 진행
이후: 앨범제작 + 쇼케이스 개최

각 차시별 황금기와 맛있게 먹은 감 - 하하랑

임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비슷한 주수의 산모들끼리 한자리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들 소통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1차]부터 저와 비슷한 주수의 산모분들과 유머러스하신 '조용한 수다' 김석희 감독님, 유쾌하게 시를 설명해주신 최윤정 예술강사님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한 분위기를 타고 큰 시너지와 감정적 감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눈앞에서 생생하고 로맨틱했던 산부인과 전문의 부문현 과장님의 기타연주와 노래공연, 임산부들이 궁금해하던 Q&A 시간까지 정말 알차고 또 알차네요.

[2차]에서는 편지를 낭독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태명을 왜 뽀실이, 감자, 또복이, 복덩이, 황금이로 지었는지와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가족들의 메시지 앞으로 얼마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지 등, 이 모든 것들이 편지에 녹아있어 귀 기울여 공감하며 그동안 정적인 일상 속 안일하게 흘러가던 저의 감성에 크나큰 두드림이 되었답니다. 평상시 편지를 적을 일도 잘 없지만 적을 때와 달리 모두 앞에서 마이크로 낭독을 하자니 점점 눈가가 축축해 지더라구요. 이 감정은 뭘까? 나에게 어떤 감흥을 불러 일으킨 걸까? 부슬부슬 내리던 비와 함께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해야 했답니다.

다음으로 요즘은 시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노래와 앨범



제작에도 빠질 수 없었는데요. 그것을 몸소 느낀 순간이 바로 [3차]와 [4차]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시로 노래를 만들어 보내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어도 제가 직접 해볼 용기는 없었는데요. 시 파트를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시던지 전혀 어렵지 않게 현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경험이었어요! 사실 임산부가 되고 나면 육아용품이나 태아의 성장과 발달 등에서는 전문가가 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그 경계를 확 깨뜨려 주는 신선하고 청명한 순간이었답니다. '어? 나도 쉽게 할 수 있네?' 하며 자신감을 채워받았던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제출한 아날로그 감성 뽀뽀의 '기쁜 눈물' 책은, 책을 제공해 주시고 저희의 임신 10개월 간의 이야기로 꾸며갔었는데 임신을 알게 된 시점부터 남편의 반응, 되돌아본 결혼식, 우리 가족이 황금기와 함께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함께 할 겨울까지 아기가 크면 보여 줄 상상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레 꾸몄더니 평생을 보관할 책이 되었답니다. 육아하며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 속에서 실용성만을 추구하던 저에게는 마냥 흘러 갈 것에 마음껏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좋았답니다. '몰입'이라고 하죠. 어딘가에 진-하게 폭- 빠졌다 나올 수 있다는 건 세월이 가며 적어지는 일인 것만 같았는데 크나큰 삶의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5팀의 책 일부를 스크린에 띄워 다른 분들의 일상도 엿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눈에 보였던 [5차].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마음껏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신나게 부르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오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날인데요. KBS에서 촬영도 오신다고 하여 백 년 만에 단장하고 갔더니 몸도 마음도 정말 기분이 났답니다.

다시 찾은 감, 감흥, 단감 - 나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명랑한 6살 누나와 귀여운 4살 직진남을 키우고 있는 ENTJ 애들 맘입니다. 결혼해서 그 해 아이를 가지곤 쭉 제가 없는 생활을 해 온 셈인데요. 예를 들면, 의료적 개입 없는 자연주의 출산을 통해 각 1시간, 30분 만에 아이를

날아 조리원에 가서 일주일은 모든 수유콜을
갔고 나머지 일주일엔 잠에 못 이겨 새벽 2시
수유콜만 제외하고 다 갔어요.

첫째 18개월, 둘째 27개월 완모를 하였고 천
기저귀로만 아이 둘 10개월 짝 채워 썼습니다.
이유식은 매 끼니 메뉴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만들어 먹이고 쌀가루도 직접
쌀을 갈아 매번 죽을 푸고 간편하게 나오는 냉동 큐브나
전자레인지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육아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요. 첫째 어린이집은 둘째 태어나기 한 달 전인
24개월에 보냈고 둘째는 셋째 가진 달인 29개월까지 최대한 데리고 있다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지도 않았어요. 이유식 먹던 시기부터 돌 때까지 점차 늘려가며
문화센터 주1~3회 다니고 몬테소리, 음악 자극, 원어민 노출, 생태체험 등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정말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며 여러 가지 경험을 꾸준히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지요. 이 이야기로만 전체 글보다 더 길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놀이
교육이 아닌 학습 우선시는 아니어서 운 좋게 제 기준 1순위 자연 속 배움을 우선시하는
숲유치원도 10: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등하원 25분씩
남편이랑 제가 라이딩하고 있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만 봐도 숨 막히지 않나요. 물론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커 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커가면서 같이 일정 세우며 저와 발맞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한 달, 한 주, 매일 단위로 계획에 맞게 일상이 흘러가니 작은
성취감들도 느끼고요. 근데 여기에는요, 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모두 쏟아부를
만큼 말이죠. 이타적인 행복에 만족 기준을 맞추고 저를 다독이며 살아 온 건데 그게 제
욕심과 완벽주의 충족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그렇기에 이번 자장가 프로젝트 참여는 더더욱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답니다. 온전히
100% 제가 좋아해서 하고 싶고 잘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에 대한 투자였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소프라노 파트장을 8년간 했던 잊고 지낸 저의 모습과 노래 부르던
감을, 그것을 느끼던 감흥을 되살려 주는 가을의 달콤한 단감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TJ 성향은 '다소 기계 같다' 하죠. 육아에도 제 감정을 많이 섞지 않는 편인데 아마 그게
저의 생존방식인 것 같기도해요. 근데 이런 제가 평상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인 편지를
남독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이 가을을 온전히 가슴으로 느끼며 마음 벅찬 9월을 보낼
수 있었다니!! 꿈만 같은 9월이었고 앞으로 있을 나머지 일정 또한 그럴 듯 합니다.
내가 살던 삶보다 이 프로젝트가 줄 수 있는 행복에 감화되어 이 길 끝엔 어떤 내가
되어있을지 더 기대되는 요즘이에요.

더 많은 감을 따게 해준다면?

선율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최종 노래의 탄생은 가이드를 제가
선택하고 그것을 참고하여 작곡가님께서 제작해 주시는 방식이었잖아요. 몇 날 며칠
잠을 설치가시며 5팀의 노래를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을 작곡가님 생각에 마음이
저릿하면서도 한 팀까만 만든다면 재밌지 않을까? 선율과 꾸밈음 등을 직접 넣어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상상만으로도 설레었네요.

가을에 익은 감 Golden

제가 이번에 만드는 노래 제목은 Golden인데요. 아직 부제는 정하지 못했어요.
감독님께서 25년도에 유명했던 제목을 담아보는 것도 만든 시점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하셔서 고민 끝에 선택해 보았답니다.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던 노래 '사랑의
하츄핑OST-처음 본 순간'을 가이드곡으로 삼아 뮤지컬 노래 속 웅장, 고요, 따뜻함이
담겨있는데요. 선율도 참 아름답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제 노래도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신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길 바라며 그날의 감성 속에서 다양한 감흥을 느낄 수 있기를.

반팔을 입고서 시작했던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 앞으로 10월 녹음과
11월 쇼케이스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무언가에 도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임산부의 몸으로 기나긴 대장정의 반이나 왔다고 생각하니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 영근
햇살로 지은 옷을 황금이와 함께 입고 있는 것 같은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한영신

성악을 통해 길러온 감정 이해력과 EQ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언어 속 감정의 미묘한 결을 탐구하며, 공감 능력을 언어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려 한다.

쓰레기를 주우러 바다에 간 게 아니다

글. 신영



2022년, 3월 해녀가 될 꿈을 가지고 찾아간 거제해녀아카데미에서 물질 수업을 받던 중 전복, 해삼, 멍게, 뽕소라 같은 해산물보다 먼저 스티로폼과 그물 조각, 폐어망들이 걸린 바다를 보게 된 것이 '해녀와 바다'의 시작이었다.

정확히는 더럽혀진 채 방치되고 있던 바다에서였던 것 같다.

나는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20년 차, 하루 8시간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동시에 '해녀와 바다'라는 1365자원봉사 실적인증 비영리단체의 대표로 살아간다. 나에게 바다는 처음엔 단순히 '물속이 좋아서' 들어가는 곳이었다.

15년 전 프리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며 내가 만난 바다는 맨몸으로 접하는 세상의 깊이이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의 예술이었다.

하지만 해녀가 되기 위해 숨을 참고 깊이 들어갈수록 마주한 건 환상적인 해초군락지나 물고기 무리만이 아니었다.

그 아래에는 얹히고설킨 폐그물, 스티로폼, 일회용 컵, 플라스틱, 낚싯바늘, 냉장고, 전기장판, 폐타이어 등 기상천외한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더욱이 백화현상으로 사라진 해초 덕에 자연산 전복이나 뽕소라 등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아름다움을 기대했던 바래고 달리 너무도 비극적인 현실이 내 감정의 스위치를 눌렀고, 거제도 바다에서 시작했던 쓰담*이 결국 10명 남짓한 직장 동료들과 사내 동호회를 만들어 부산 바다도 쓰담기 시작했다.

*쓰담
: 쓰레기를 담다

시작은 단순히 바다가 좋아서, 수영을 좋아해서, 다이빙이 좋아서였고 그저 우리가 항상 가까이 접하면서 보고 있는 바다만큼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2024년 1월 시작된 정화 활동은 어느덧 1년 9개월 동안 30번이 넘는 정기 활동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정기 회원만 170여 명, 매 활동 때마다 20~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부모님과 손잡고 온 최연소 4살 어린이부터 미취학 아동들, 초, 중, 고등학생, 청년들, 10~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의사, SSU특전사, 선생님, 현직 해녀, 공무원 등 직업도 다채로운 회원들과 함께한다. 활동지역도 송도 어촌계, 영도 동삼 어촌계의 중리 해녀문화전시관 앞 바다와 하리항, 북항 친수공원, 거제 가조도 진두항 마을까지 넓어졌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거제 가조도에서, 셋째 주 토요일은 부산에서 진행되며, 해양 정화는 조별로 나누어 ‘플로깅(육상정화)과 플로빙(수중정화)’을 병행하며 활동하고 있다.

플로빙은 수중에서 진행되는 만큼 자격증이 확인되는 회원들만 가능하며 플로빙 조로 합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해녀와 바다에서 그린다이버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합류하고 있다.



우리는 ‘쓰레기를 주우러 바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간다’고 말한다. 해안가는 물론 물속의 쌓여있는 쓰레기는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습관과 무관심에서 방치되고 있다.

옷장에 옷이 가득 있어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며 또다시 새로운 옷을 산다든지, 각종 이벤트 행사장에서 사용되고 쉽게 버려지는 굿즈들,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 등을 볼 때마다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곤 한다.

물티슈대신 손수건을, 외출 시엔 반드시 텀블러를, 플라스틱 통에든 샴푸보다는 쓰면 없어지는 샴푸바 등.

그래서 이 활동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자연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바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염된 바다에서 단순히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마주하는 자세와 태도를 바꾸게 되어 결국 나 스스로의 삶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부산일보에 기재 된 해녀와 바다 기사를 보시고 인연이 된 부산문화재단의 ‘2025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 in 광안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진행된 영도 중리 해양 정화는 내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워낸 쓰레기들은 마대자루에 담아 쓰레기차로 직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그냥 버려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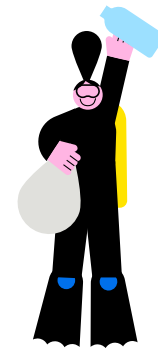
광안리 비치코밍에서는 1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수거한 플라스틱, 폐그물 등을 업 사이클링(up-cycling)하여 공동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되었고, 한성1918에서 전시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한 ‘탄소중립 실천 예술 행동’을 주제로 세미나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예술 행동 실천방안, 탄소중립 시대의 창작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10월엔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바다 미술제’의 모든 곳이 플라스틱 토론과 라운드 테이블에서 초청연사로 참가하게 되고 보니 그 동안의 활동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새로운 감화에 젖어 본다.



최근에 인연이 닿게 된 해녀에 관심 있는 일본 작가 야마우치 테루에님과 함께 10월 영도 중리에서 해양 정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바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것이, 바다 속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게 되고, 주워낸 쓰레기가 예술로 승화되고, 다른 나라의 예술가까지 연결되고 보니 평소 쓰레기와 예술과는 거리가 멀다고만 생각해 왔던 해녀와 바다의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받아 자신의 예술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나눠 가진 또 다른 이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다쓰담을 하는 우리도 이미 예술활동에 한 발을 딛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



지금은 부산문화재단, 부산항만공사, 영도구청, 서구청, 수협중앙회, 환경재단 등의 기관과 협업하여 활동을 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해양레저시대에 맞춰 ‘해녀와 바다’는 ‘그린다이버 양성과정’을 통해 해녀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해루질을 일삼는 다이버가 아닌 순수 취미활동과 정화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다이버를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바다 교육 플랫폼으로까지 확장해서 시민들이 바다를 더 깊이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 해녀의 본거지였던 영도 동삼동에서 출향해녀들의 삶을 잇는 어촌마을 체험과 기업 협업 모델을 만들어보고도 싶다.

이 모든 과정은 기업, 지자체,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와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다행히 지금까지 함께해 준 기관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해양활동을 위해 더 많은 협업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우리는 거창한 활동을 한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누군가의 삶에 작은 울림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해녀와 바다’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묵묵히 바다의 목소리를 들으려 갈 것이다.

부디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쓰레기 몸살로 토해내는 바다의 신음 소리가 들리길 바라며,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영

1365자원봉사실적인증 비영리단체 ‘해녀와 바다’ 대표.

다이버강사이자 해녀가 되고 싶은 20년차 직장인. 바다를 향한 열정으로 ‘해녀와 바다’를 만들어 매달 1, 3주차 토요일 바다를 쓰담고 있다.

감의 언어, 감의 형상



becoming
91x116.8cm
embroidery and acrylic on canvas
2025

Eternal White I
45.5x53.0cm
embroidery+acrylic on canvas
2024



Ease
60.6x72.7cm
embroidery+acrylic on canvas
2023



서수연 작가의 작품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다면
QR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서수연
감정을 시각 언어로 풀어내며 이를 물리적 형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페인팅 위 자수와 디지털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며, 보이지 않는 감정의
결과 흐름을 시각화해 관객의 감각과 경험 속에서 새로운 해석과 확장된 의미를 만들어낸다.

부산문화발전 위해 기부 결심한 청년예술가

김승욱



김승욱
청년 무용가. 한양대학교 ERICA
무용예술학과에 재학 중.
꾸준한 창작과 무대를 통해
현대무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9월 20일, 청년의 날에 즈음하여 부산문화재단에
흔한 기부 소식이 전해졌다. 무용수 김승욱(경기도
안산시 거주) 씨가 콩쿠르에서 받은 상금 중 100만 원을
부산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부산문화재단에 기부하면서
20대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김승욱 씨는 한양대 ERICA 무용예술학과에 재학하며
2024년 <제54회 동아무용콩쿠르> 현대무용 일반부
남자 금상을 수상하고, Mnet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 등에 출연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
시킨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제41회 KBS부산 무용콩쿠르>에서
일반부 현대무용에 출전,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청년 무용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과 창작 지원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적은 금액이지만 부산 문화예술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청년들도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이사는
“청년의 마음은 청년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한다. 재단도
같은 마음으로 청년예술인과 함께 부산 예술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청년이 문화예술을 위해 직접 나눔을
실천한 의미 있는 사례로, 지역사회
예술가들은 물론 유관 단체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어 이후 청년
예술인들의 지역사회 문화예술
부흥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공감 그리고》 독자 만족도 조사

《공감 그리고》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중 매월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을 지급합니다.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설문기간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당첨발표 매월 초 개별 연락

지난 <여름호> 어떻게 보셨나요?

“인공 지능은 ‘땀’을 흘리지 않는다”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경험의 멸종’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AI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제가 직접 해봄으로써 얻는 것이 진정한 저의 것
이며, 그런 경험들이 쌓여 비로소 진짜 ‘나’가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됐어요!

바다도서관 코너가 기억에
오래 남아요. 바다와 어우러진
문화생활이 새롭습니다.

지금처럼 지역 예술가와
문화공간 소개, 문화재단이 하는
프로젝트를 더 담았으면...

<가치, 있다> 부분의 음악으로 다시 잇는 여정 좋았어요.
나이를 뛰어넘어 소통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음악의 소중함과
역할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과
예술인을 많이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립니다

《공감 그리고》는
겨울호(59호)를 마지막으로, 종이 위에서 이어온
이야기가 이제는 **화면 속에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종이 위에서 함께한 소중한 시간,
그 감동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공감 그리고》는
화면 위에서,
더 가까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부터는 **더 새롭고, 더 친근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가겠습니다.

※ 《공감 그리고》는 앞으로 온라인 웹진으로 이어집니다.
지면으로 받아보시던 독자께서는
아래 메일로 개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웹진 소식과 구독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bscf@bscf.or.kr